전주가 '왜 즐거울까?' 비법 공개

전주평생학습한마당 9월 1~3일 열려… '즐겨라 평생학습' 주제 '전주를 즐겨라' 체험 등 운영

풍성한 가을을 맞아 전북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학습축제인 '제12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마당에서 개최한다.

'즐겨라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이번 평생학습한마당은 전주지역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동아리, 공동체 등 116개가 참여할 예정이다.

평생학습한마당에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 문화와 예술,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뽐낼 예정이며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 역시 체험을 통해 평생학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주를 즐겨라'를 테마로 각종 체험 등을 통해 전주를 더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전주역사박물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 평생학습 결과물을 나누는 장터인 '학습몰 1번가'를 운영해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또한 학습마을 형태로 '오감으로 즐겨라', '문화로 즐겨라', '참여로 즐겨라' 등 3개 테마를 운영할 예정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평생학습 주제관의 경우 '평생학습으로 즐거운 인생'을 주제로 운영해 모든 배움과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평생학습 강사들의 전시와 공연, 체험의 장인 '평생학습 강사한마당'도 펼쳐진다.

강사들은 공동기획을 통해 소리로 놀기, 강사열전 나도 강사야!, 강사들 작품 전시회, 학습 릴레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강사 밀착형 축제를 준비한다.

또 성인문해 학습자 전시회 '어르신 나의 삶을 쓰다', 평생학습동아리 공연과 버스킹 공연, 청소년 댄스파티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굿네이버스 등 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시민참여.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시민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슬로시티 全州 오손도손' 시작

전주시는 28일 혁신도시 문화공간 문화숲에서 혁신도시 공동체 '혁사맘'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全州 학교 오손도손' 첫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슬로시티에 대한 소개를 듣고, 전주문화원에서 들려주는 우리지역의 옛 이야기와 지금의 마을 모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국악인들의 판소리와 아쟁 등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이날 오손도손 프로그램에서는 참석자들이 가져온 반찬과 과일, 공동 취사한 밥을 함께 나눴다.

이어, 회원 모두가 100일 후 받아 볼 수 있는 '사드락 사드락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쓰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주시는 슬로시티 마을학교 프로그램 '오순도순'을 오는 11월까지 전주시 각 마을 및 단체 등 40개 정도를 찾아가 운영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는 28일 혁신도시 문화공간 문화숲에서 혁신도시 공동체 '혁사맘'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全州 학교 오손도손' 첫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붙잡혀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7일 11시 10분께 김제시 한 석재공장에서 별거중이던 아내 A(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이혼심판 청구로 지난 5월부터 별거중이었고 이날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싸우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아내가 죽게 생겼다"며 "내가 아내를 찔렀다"고 자수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추경 1조5982억원 편성… 1685억↑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전주시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1조5982억원으로 편성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1조5982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이는 당초예산 1조4297억원보다 1685억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다.

심의를 요청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22%(1124억원) 증가한 1조33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55%(561억원) 증가한 267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지방소득세 7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58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 시.군조정교부금 8억원, 순세계 잉여금 626억원, 전입금 62억원 등을 계상해 당초예산 보다 1,124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교통.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 전주 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가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본예산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추경예산에도 134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방채 규모가 지난해 말 1,642억원에서 1,477억원으로 대폭 감소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4일부터 진행되는 전주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묻힐뻔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검거

군산경찰서 조남권 경사 꼼꼼한 수사로

베테랑 교통사고 조사관의 '매의 눈'으로 뺑소니범이 검거됐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에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조남권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것은 지난 25일 저녁 군산시 산북동 A교회 앞 4거리.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당시의 경위를 전혀 청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 경사는 처음에 오토바이 단독으로 도로위에 전도되어 발생한 사고인 줄 알았으나 CCTV 판독결과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량의 영향으로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졌으며, 화물차량은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한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용의차량의 흔적을 전혀 발견치 못하다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도주경로를 파악하고, 이후 자동차 관련업체 탐문 등 면밀한 수사결과 용의차량의 바퀴, 문짝 등 특색을 잡아 차종을 특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사고지점과 용의차량의 도주경로 등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며 반경 3Km 내 동일차종에 대한 압축수사를 벌이고, 해당차량의 진행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에서 차량을 발견, 사고가 발생한지 하룻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시, 8월 주민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전주시는 8월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세 민원상담반 운영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달에 부과한 주민세는 27만1000건, 51억원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은 30억원, 지난해 기준 48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12억원, 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9억원이 각각 과세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나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사회초년생 '작업대출' 일당 13명 검거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작업대출' 일당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완산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A(2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0)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6월 8일까지 피해자 15명의 명의로 8곳의 금융기관에서 2억25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전액 채무변제를 해준다고 속여 개인당 은행 2~3곳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게 하고 재직서류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작업대출' 수법을 이용했다.

또한 모집담당, 대출담당, 위조 담당, 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실행 등을 지시하고 금원을 배부하는 총괄담당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작업대출 수법은 모집책이 피해자들을 물색하면 대출책과 위조책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위조해 금융기관에 실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속여 실행된 대출을 총괄에게 보내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대출금의 상환의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전가한다.

사기 대상자 모집 담당과 서류 위조 담당은 각각 200만~250만원을 챙기고 총괄 담당자인 A씨 등 주범 2명은 약 7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2달여간에 걸친 수사 끝에 대출실행 경위와 피해 규모 및 관련자를 파악해 피의자 1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